

NSFW R+18

+LITE



MY SPANKING FRIENDS

Spanking
Manga &
Illustrations

Vol.56

JUNE
2023

Copyright©2023 by インヨ.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All the characters in the contents of インヨ is more
than 18 years of age.
They are just doing role-play according to their roles
and the age appearance is due to the setting in the
contents, supported by computer graphic.
作品内で描かれる登場人物は全員成人であり、これらはすべてロー
ルプレイングです。



HABA

entertainment

HABA
entertainment

19살 막내는
아직도 댄스가
부족하고

21살 언니는
체중이 2kg나
늘었어.

20살이면서
리더인
루나양은,
팀원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거야?

말했지?
너희, 이미
데뷔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줘

회사는 연구생에게
직접 연습이나 체중
감량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다들
따라와주세요.

이대로는
데뷔할 수 없어

다만 책임을
동료 멤버에게
전가할뿐.

오늘 연습은
여기서 끝이다.

Dance
Practice
Room



앞으로 언니도
몰래 간식 먹다
들키면 엉덩이
때려줄거예요!

그, 그건
스트레스때
문에...
아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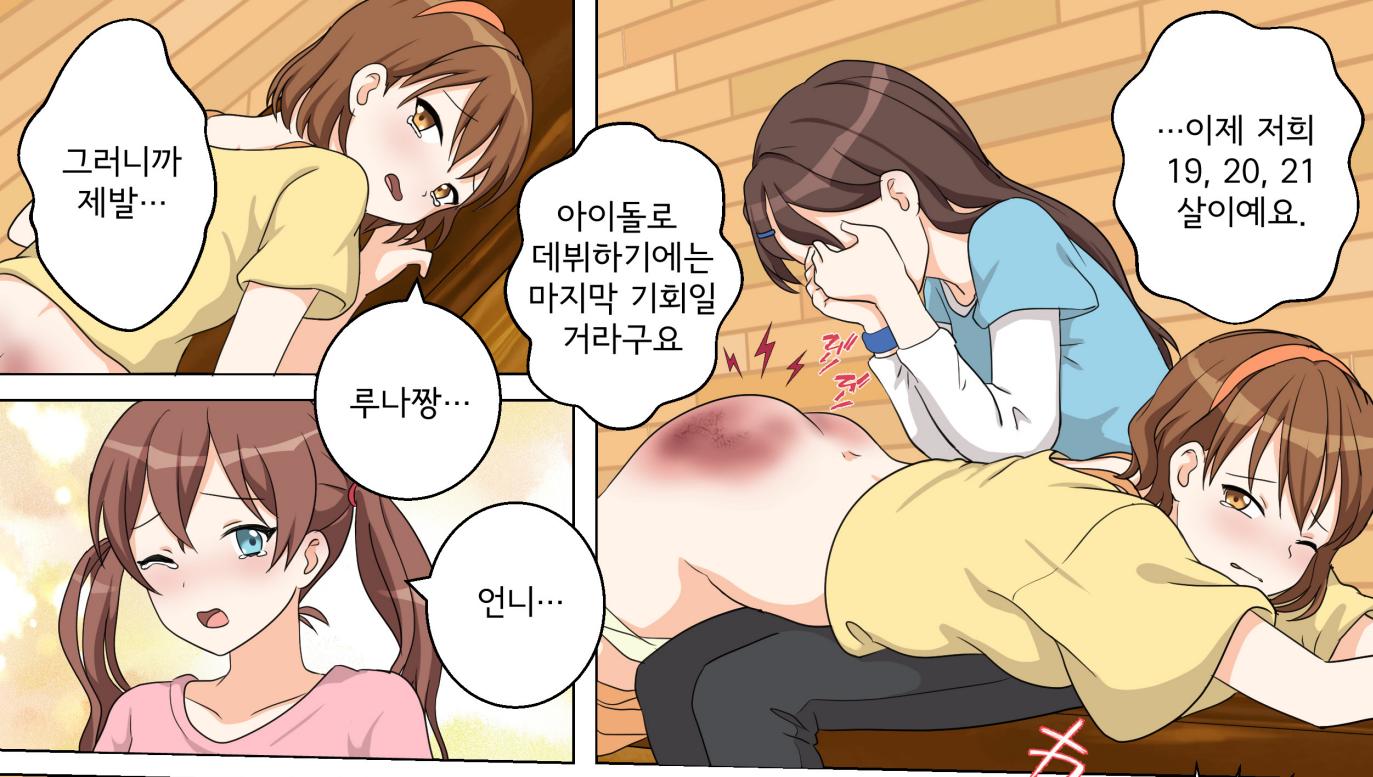
언니, 어제도
혼자 야식먹었죠?

자기관리는
아이돌의 기본인걸
모르시나요?

대체 왜!
다들 필사적이지
않은 건가요!

미, 미안해-!

저만 데뷔하고 싶은
꿈이 간절한 건가요?!



5분간 반성후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OO생명보험사
직원으로 일하는
코즈미씨.

3?
?:

음-
다음은...

교육계
코즈미입니다.
OO부서 OO씨
계십니까?

프로배구
선수다.

네,
찾아가겠습니다.

평범한 OL로 보이는
그녀이지만, 사실
그녀의 본업은...



코즈미씨는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수상경력도 다수

시즌 중에는
OO생명보험팀
소속
배구선수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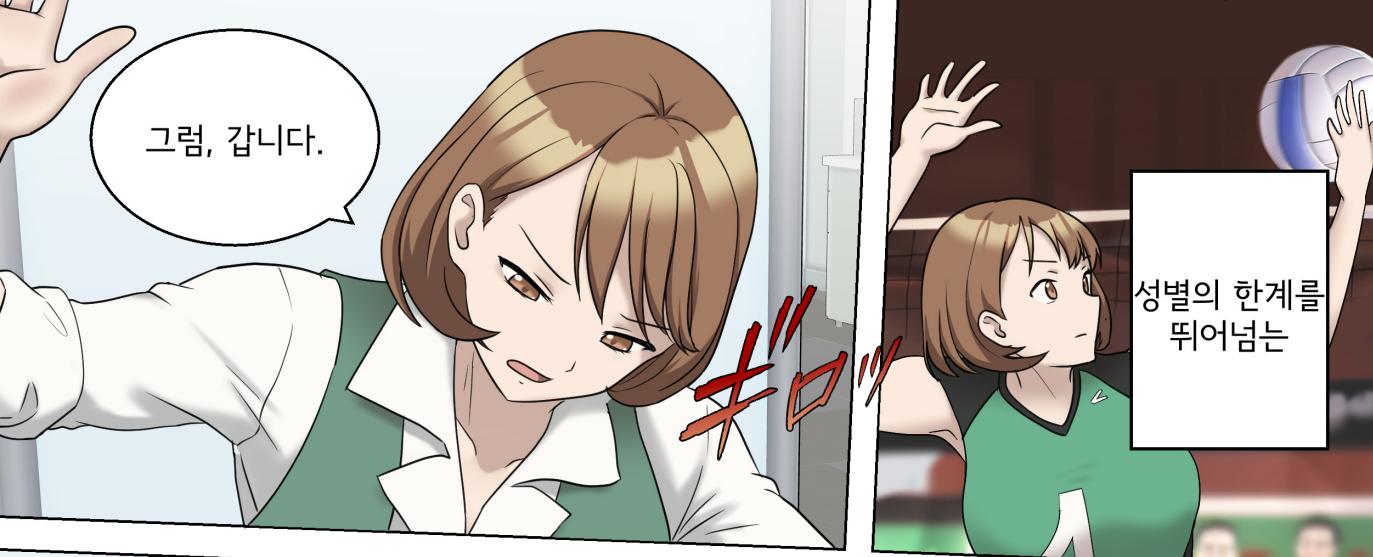


시즌 아웃기간에는
사내 교육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





경무대에
배치되어
집행관
보직을
수행하며
만난 여자
수용인원의
하나는



아마도 또
누군가 종아리를
맞고 있나보네.

보러갈래?

네?
하지만
...

어?

선배,
이 소리는...

이리저리
여기저기

괜찮아.
신입인 너도 곧
겪게 될 일이니까.
금방 익숙해질걸?

궁에
들어온지
6년차인데
아직도 실수를
하는것이냐!

이리저리

죄,
죄송
합니다
...



ぱん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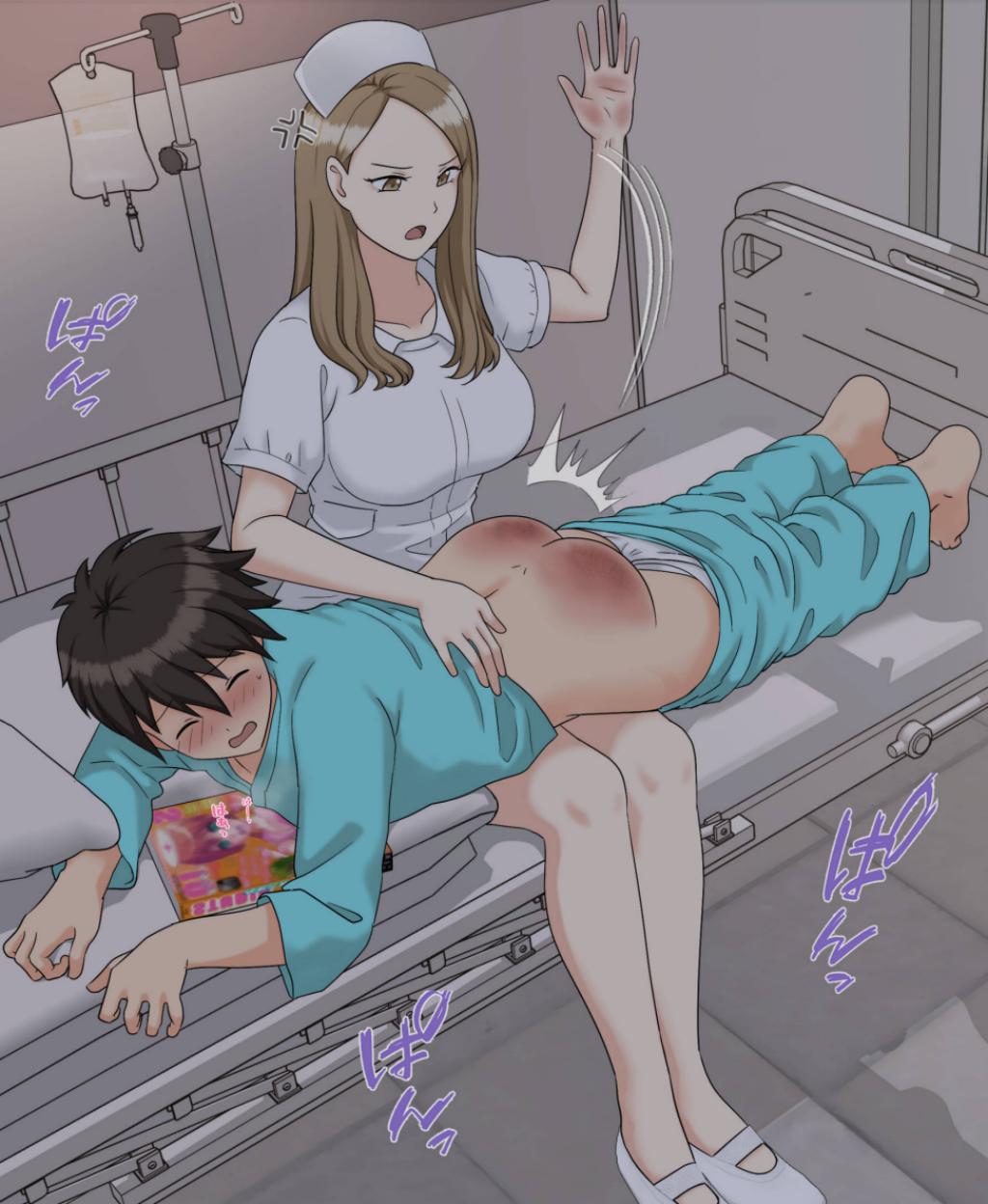
ぱんく

ぱんく

ぱんく

결국 방을 잡았다.







엉덩이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간호사를
어떤 눈으로
본건가요?

はん

はん

はん







우,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렇네~

곧 오해가
풀렸다.

미안!
미안해!
용서해줘!



나,
난 부루마
같은거
안 훔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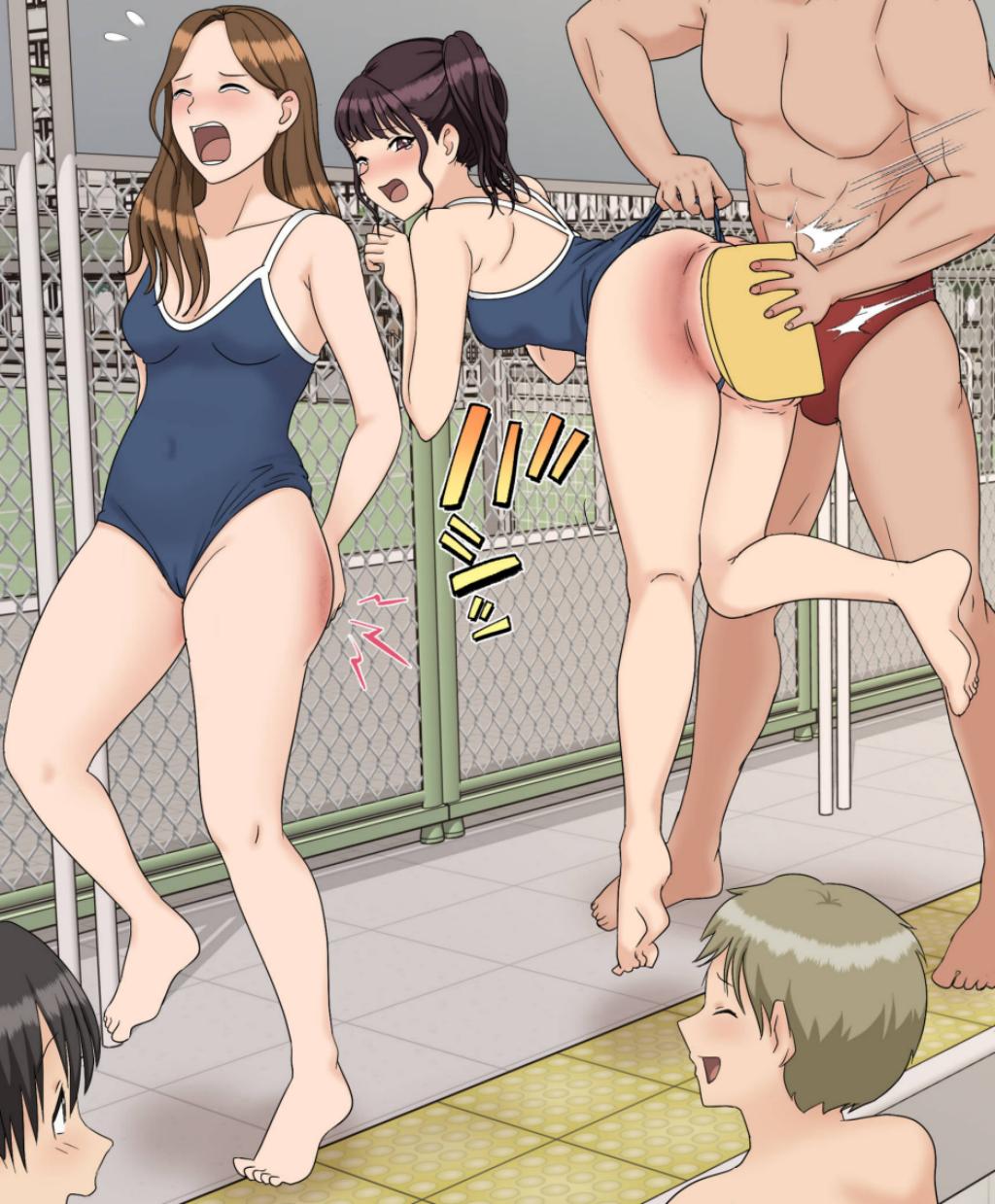
거짓말 하지마!
주변엔 너밖에
없었으니까!

역시 너인줄
알았어!
반성하라구!
변태!



범인









너희는
수업
끝날때까지
여기서
손들고있어!

？？？

ははははは

18살이면서
애들처럼
장난이나
치고말이야!

으으,
창피해...

꺌꺌





TV는 숙제
다하면
보기로 했잖아!

와-앙
오빠같은건
싫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긴장이
풀어졌잖아!

남은 기간은
고문선생님
으로서
역할도 엄격히
할테니
각오들 해!







じー

やあああ

ひー

14~23세의 나쁜
여성을
수용하는 시설.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표방하지만 엄연한
[교정시설]으로

あああ

법적으로 신체형이
허용된 18세 이상의
수용자는 정기적으로
체벌까지 받아야한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막
18세 성년에 다다른 수용자
야마나기양.



오늘부터
3년간 매주
뉘이게될
나무 형틀도
아직 어색하
기만하다.

입소한지 3년만에
첫 신체형을
받게된 그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선생님도 이상하고

[선생님]이라 불리는
교정국 직원도 3년간 제자이자
딸처럼 여기던 아이를
엄격히 체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

선생님,
저 무서워요…



